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opia.com/mem/ha nmaum

'나'를 찾으려 말고 그냥 놓으세요

여러분과 또 한자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주인공(主人空)을 말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공(空)자가 '빌 공(空) 자'가? 그럼 '주인공' 할 때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도 없고 있다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약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다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어있어도, 비록 허공이라 할지라도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크고 작은 것, 작고 싱거운 것 또는 사계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생각 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수많은 생각을 해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에 따라 그냥 나오는 거요.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딱치면, 예를 들어서 '어보!' 하고 부르든가 '아버지!' 하고 부르든가 한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거, 할나할나 해내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소집입니다.

한단 안 한단을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갈 때에 한단 안 한단 생각을 하고 살니까, 그렇지 않죠? 한단 안한단 생각이 삽니다. 그러다 딱치면 그냥 딱치는대로 받아들이고 녀석하게 해줍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애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친구로서 여여하게 해내고 아주 치밀하게 거기서 그냥 그 상대방의 용도를 보고서는 그 사람의 과정을 벌써 익힌 사람이라 그냥 그냥 여여하게 나오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았다 또는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개를 놓고 하나는 찾은 한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되라' 이었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있었죠. 예전에 내가 나이

나 이끄는 선장
나한테 있으니
놓는 작업 자꾸하면
주인공자리 잡혀요

참 스물 안쪽이었을 때 백련사를 지나가는데 묘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좀 쉬느라고 툅 앉으니까 하는 소리가 '저 묘지가 돌인데 하나는 아들 거고 하나는 애비 거니라. 그런데 애비가 아들한테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무슨 연고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디다. 보이는 데만 짐작

조건없이 보시하면 조건없이 받게 돼요 둘 아니게 놓는 도리가 육바라밀 정진

을 하고 보이는 데서만 숨이 많이 쉰 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을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아차하고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체가 없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저건 체가 없어 죽었다면, 영이라면 체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뭐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 그렇지, 영이 영한테 들어가면 영이지 뭐 별 수 있나. 또 이쪽으로 와도 영이 영이니까 그냥 하나로 되지. 나중에 세밀히 따지고 보면 영이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지.' 하구서 생각을 하니가 다리가 툅 떨어져서 그냥

어려났어요. 럽과 같이 만불(萬佛)이 일불(一佛)이다 하는 뜻이 됩니까. 만 사람이 깨우쳐서 만 개의 영이 있어도 한 개의 영에 들어가면 그냥 일불로 되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할려면 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다, 불성이다, 불국토다 하는 이유는 뭐냐?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불이 들어가죠. 불교도 불이 들어가고 불국토도 불이 들어가고 불성도 불이 들어가고 이 셋이 다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셋이 한데 합쳐도 셋이 아니라 얘기죠.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 말하는 놈도 보는 놈도 듣는 놈도 바로 그놈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아둬서 오로지 놓아라 이런 거죠.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놓아라.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들고나는 것이 그대로 여여해서 들고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 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하면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낸답니다. 스스로 들어와서 스스로 또 내죠. 그게 여여하게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반야심경>에도 '고정됨이 없이'라고 풀이를 해놨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그림 · 최주현

라고 한 까닭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 차를 타는 것,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인 것 등,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한군데서 아니 한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이렇게 할나할나 보면 보는데로 들으면 듣는데로 가버리고, 할나할나 가버리고 또 들게 되고 할나에 가버리고 또 보게 되고, '어보!' 하면 남편이 돼서 돌아오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돌아오고 '애, 아무개야!' 하면 또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돌아가듯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할나할나 가고 공해서 없으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우리가 할나할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이지 함이 없이 그냥 공해버렸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모두 공해서 함이 없이 하고 있고 삶이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

각해 봅시다. 달린트가 죽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여여하게 하는 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는 역할을 해도 그 역할만 끝나면 자기는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리를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때어놓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당히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그대로 뛰는 거며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알아지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선장은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내가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기 전에 놓는 작업을 자꾸 해야만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에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또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렇게 차차차차 하다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 돼 있거든요.

불가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계를 받았죠. 오계를 받는 도중에 육바라밀의 뜻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둘 아니게 이 마음 하나로서 일체가 다 담겨있으나 담겨있지 않고 빌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할나할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살행은 어떤 거고 무주상 보시라는 건 뭐고 또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건 무엇인가 이겁니다. 꼭 큰 것을 보시를 해서만이 보시가 아니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막론하고 하더라도 사탕 하나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건 보시가 되는 수가 있고 진짜 무주상 보시가 되는 수도 있고 보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큰 돈을 보시를 했다 이래도 무주상 보시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살행이 안되는가. 준 것만 생각하지 가져간 건 생각을 안하기 때문이요. 여복하면 재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 게 가서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 온 거지 내가 가게에 돈을 줬다고 말할 것 없나. 이것도 배우는 과정에 쓰는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물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글에 얽매어 실상을 못보면 덧에 걸린 것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이쪽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질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면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다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장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벌과 같다.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들되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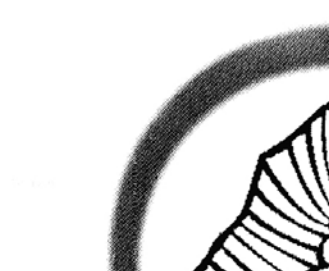
금강경을 탈탈 외었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율·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법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제 능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뛰어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으로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 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돌 아나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울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

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 설명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을 다 따르는 게 예외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방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 짜는 방법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편을 덧 붙여 점이 되게 해서 안될 것이다. 로켓 타고 날는 세상에 좌도없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풍 둘러쳐서 지금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죽음이 되어 하고 즉행(即行)이 되어야만 죽어(即如)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뮬만 내는 걸잡기가 될 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 아니라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날지 못한다면 경전 벌레밖에 될 게 없다.

역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덧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버려 볼 수는 없다. 흔히들 걸잡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는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흥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 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협찬: 주인공